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에 나타난 彈脈의 의미에 관한 고찰 - 帶脈을 중심으로 -

¹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과 대학원생 · ²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과 교수
박진우¹ · 황민섭² · 윤종화^{2*}

A Meaning of the Tan Pulse(彈脈) in the Qikoujiudaomai(氣口九道脈) Method for Examining the Eight Extra Meridians(奇經八脈) Pulse -Focusing on the Belt Pulse(帶脈)-

Park Geon Woo¹ · Hwang Min Sub² · Yoon Jong Hwa^{2*}

¹Graduate Student at Dept. Acupuncture & Moxibi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²Professor at Dept. Acupuncture & Moxibi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is to find the meaning of Tan pulse in Qikooujudamai Diagnosis,

Methods : In terms of Qikooujudamai, the position to diagnose the Intermittent Pulse is Kwan(關) position and the pulse is Tan(彈) pulse. To find the meaning of Tan pulse, the symptoms of Intermittent pulse were analyzed. Then the symptoms were analyzed in terms of both Qikooujudamai Diagnosis and 28-pulse diagnosis to find the correlation.

Results & Conclusions : The Tan pulse at Kwan position is related to Hyen(弦), Kin(緊), Hwal(滑), Dan(短) pulse in 28-pulse diagnosis. The symptom of disease of Intermittent pulse's diagnosis is mostly concluded to those 4 pulses. Qikooujudamai is the diagnosis for acupature treatment, but with 28-pulse diagnosis, it can be developed to usage of medicine.

Key words : Eight extra meridians, Intermittent pulse, Qikooujudamai diagnosis, 28-pulse diagnosis.

* Corresponding Author : Yoon Jong Hwa

Dongguk University Gyeongju Oriental Hospital, 87, Dongdae-ro, Gyeongju-si, Gyeongsangbuk-do 780-350, ROK

Tel: +82-54-770-1254, Fax:+82-54-770-1500, E-mail: item0220@daum.net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October 20, 2021), Revised(January 15, 2022), Accepted(January 18, 2022)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奇經八脈은 《素問》, 《靈樞》에 陽維脈, 陰維脈을 제외한 任脈, 督脈, 衝脈, 帶脈, 陰蹻脈, 陽蹻脈 6개의 奇經이 기술되어 있고 《難經·27難》에 陽維脈, 陰維脈을 포함하여 奇經八脈과 循行 및 특징들이 기술되어 奇經八脈에 대한 이론적 체계가 갖춰졌다. 이후 李時珍이 《奇經八脈考》에서 奇經八脈에 대해 논술하여 奇經八脈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 시켰다.

奇經八脈의 병증은 《難經·27難》, 《難經·28難》에 기재되어 있지만 그 진단법은 《難經》에 언급이 없고, 《脈經·卷10 手檢圖》에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奇經八脈考》에서도 이를 차용하여 奇經八脈의 진단법에 이용하였다. 氣口九道脈에서 ‘彈脈’은 寸部に 나타나면 陽蹻脈, 關部에 나타나면 帶脈, 尺部에 나타나면 陰蹻脈의 병증상황을 뜻한다.

奇經八脈 중 陽維脈, 陰維脈, 陽蹻脈, 陰蹻脈, 衝脈, 督脈, 任脈은 몸의 上下를 순행하는 반면, 帶脈은 諸脈을 모두 묶어서 妄行되는 것을 막아 사람이 허리띠를 한 것 같다고 하여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¹⁾ 手足三陰三陽 12正經은 인체의 長軸인 세로 방향으로 순행하는데 오직 帶脈만 몸을 옆으로 한 바퀴 돈다.²⁾ 또한 帶脈은 12經脈과 나머지 奇經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³⁾ 즉, 帶脈은 腰腹을 橫으로 운행하여 몸통을 직행하는 각 經脈을 연계한다.⁴⁾ 더불어 帶脈은 腎에서 나와 脾까지 이르면서 先天之氣와 後天之氣가 만나게 된다.⁵⁾

氣口九道脈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있지만⁶⁾⁷⁾⁸⁾ 이

는 문헌적 고찰에 그칠 뿐이고, 임상에서 나타나는 帶脈 病證에 관한 논문⁹⁾과 氣口九道脈의 활용에 대한 논문¹⁰⁾은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氣口九道脈을 이용한다는 내용 일뿐 그 상세 意義와 임상에서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없다.

현대 한의학에서 통용되는 28脈의 脈象에 彈脈은 속하지 않는다. 이에 論者は 氣口九道脈에서 그 의미를 彈脈이 나타나는 세 가지 奇經 중 帶脈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帶脈의 病證의 분석을 통해 脈象을 기존의 28脈의 脈象과 氣口九道脈의 彈脈을 비교분석 하여 彈脈이 현대의 28脈 중 어떠한 脈과 대치되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彈脈을 사용한 이유와 임상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氣口九道脈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은 《素門》, 《靈樞》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難經》에도 보이지 않으며, 《脈經·卷10 手檢圖》에 최초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명대의 《奇經八脈考》, 《醫宗必讀》 등에 氣口九道脈의 部位, 病證 및 脈診 방법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고, 청대의 《身經通考》, 《醫編》 등에 氣口九道脈의 部位, 脈診 및 病證에 대해 해석되어 있다.¹¹⁾

氣口九道脈은 氣口の 前·後·左右와 上·下·中央의 소위 九道에 나타나는 특정한 脈으로서 이를 진맥하여 病邪가 있는 곳을 알 수 있다.¹²⁾ 奇經八脈은 十

1) 唐宗海 著.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宗海醫學全書. 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8 “帶脈總屬諸脈, 使不妄行, 如人束帶故名”
2) 朱祥麟 編著. 奇經證治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155 “手足三陰, 三陽十二正經皆平于人體的長軸而縱向循行, 惟帶脈向身一周.”
3) 柳長華 編著.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奇術出版社. 2014. p.76. “帶脈爲言束也, 言總束諸脈, 使得調柔也.”
4) 신흥목 지음. 장부경락학. 서울. 청흥. 2016. p.141
5) 陳鼎三 著. 江爾遜 点校. 醫學探源. 北京. 學苑出版社. 2011. p.15
6) 황정일, 이준법, 황민섭, 윤종화. 奇經八脈의 진단법인 氣口九道脈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5. 22(4). p.165-178
7) 于志亮, 楊頌, 楊孝芳. “氣口九道脈”의溯源初探. 中西醫結合

心血管病雜誌. 2018. 6(34). p.27.
8) 양승경, 진천식, 조명래. 대맥 및 그 유주상 회합하는 경혈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1. 18(1). p.105-116
9) 呂致君, 許軍峰. 近10年帶脈臨床應用研究進展. 湖南中醫雜誌. 2021. 37(4).187-189.
10) 成振鏞, 李曉君, 郭霞珍. 奇經脈診法初探. 北京中醫藥大學學報(中醫臨床版). 2010. 17(6). p.24-26.
11) 황정일, 이준법, 황민섭, 윤종화. 奇經八脈의 진단법인 氣口九道脈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5. 22(4). p.166.
12)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109 “陰陽交會 中有五部 前後左右 各有所主 上下中央 分爲九道 診之則知病邪所在也”

二正經에 約束되어 있는데 臟氣가 안정되면 八脈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¹³⁾ 즉, 氣口九道脈의 脈象은 奇經八脈에 병이 있으면 나타나고, 병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다.¹⁴⁾

《脈經·卷10 手檢圖》에서 말하는 前은 寸部, 中은 關部, 後는 尺部, 外는 浮, 內는 沈에 해당한다. 寸部浮는 足太陽經, 寸部中은 手少陰經, 寸部沈은 足厥陰經, 關部浮는 足陽明經, 關部中은 手厥陰經, 關部沈은 足太陰經, 尺部浮는 足少陽經, 尺部中은 手太陰經, 尺部沈은 足少陰經에 해당한다. 寸部の 左右가 彈하면 陽蹻脈, 關部の 左右가 彈하면 帶脈, 尺部の 左右가 彈하면 陰蹻脈, 少陰에서 厥陰까지 이어지면 陰維脈, 少陰에서 太陽까지 이어지면 陽維脈에 병이 들었다는 뜻이다.¹⁵⁾ 이 외에 任脈, 督脈, 衝脈은 그 脈象이 《脈經·卷10 手檢圖》에는 등장하지 않고 《脈經·卷2 平奇經八脈病第四》에 언급되어 있다. 前部の 寸口에서 橫으로 丸丸한 것은 任脈, 寸關尺이 모두 浮하면서 直上直下하면 督脈, 모두 牢하면서 直上直下하는 것은 衝脈에 병이 들었다는 뜻이다.¹⁶⁾ 이를 도식화한 것은 아래의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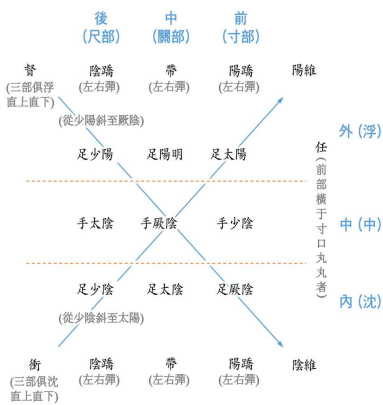


그림 1. 《脈經·卷10 手檢圖》의 脈診 部位 圖解¹⁷⁾

13) 張璠 著. 張成博, 歐陽兵 点校. 診宗三昧.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2. p.15 “奇經又十二經之約束, 若臟氣安和, 經脈調暢, 八脈之形, 無從而見也”
14) 李濤著. 珍本醫籍叢刊·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172 “此八脈之脈象, 病則見, 不病則不見”
15)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病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p.503
16)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病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p.73

氣口九道脈에서는 帶脈에 병이 들면 ‘關脈 彈’이라 하였다.¹⁸⁾ 帶脈의 病證을 關部에서 살피는 근거로는《奇經證治條辨》에서 ‘《脈經·卷10 手檢圖》에서 帶脈은 몸을 한 바퀴 돌아 한 가운데 위치를 하게 되어 關脈에서 본다고 하였다. 또 兩側 關部에서 浮에서는 胃. 沈에서는 脾를 보고, 帶脈은 章門穴에서 發하는데 이는 脾經의 募穴이다. 즉 帶脈의 氣는 脾를 통하고 고로 兩側 關部에서 帶脈의 脈을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로 요약했다.¹⁹⁾ 《脈簡補義》에서 ‘帶脈은 中焦橫行之氣를 주관하고 더불어 脾를 주관한다’고 하여 帶脈과 脾의 關係를 나타냈다.²⁰⁾ 또한 帶脈이 發하는 章門穴은 足厥陰肝經의 所屬穴이고, 帶脈의 所屬穴인 帶脈穴, 五樞穴, 維道穴은 모두 足少陽膽經의 所屬穴이다. 고로 帶脈은 肝膽의 經氣와 相通한다.²¹⁾

《素門·脈要精微論》에 따르면 中附上은 왼손에서는 밖으로 肝을 살피고 안으로 膈을 살피며, 오른손에서는 밖으로 胃를 살피고 안으로는 脾를 살핀다.²²⁾ 이는 중초에 있는 臟腑는 關部에 배속한다는 의미인 《脈經》의 關以候中焦의 의미와 旁通한다.²³⁾ 따라서 帶脈의 진단은 帶脈의 생리적 특성과 더불어 그 진단부위의 臟腑配屬까지 脾, 胃의 脈과 中焦의 臟腑인 肝, 膽의 脈까지 고려해야 한다.

17)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病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p.519
18)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112 “中部左右彈者, 帶脈也”
19) 朱祥麟 編著. 奇經證治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171 “帶脈回身一周, 其居中停, 約束諸脈, 總領六合. <手檢圖> 兩關浮主候胃, 沈主候脾, 帶脈與中焦脾胃相關切, 帶脈發于章門, 爲脾之募穴, 則帶脈氣通於脾, 故又以兩關診帶脈.”
20)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脈簡補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72 “帶脈主中焦橫行之氣, …… 帶脈主脾是矣.”
21) 朱祥麟 編著. 奇經證治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155. “帶脈發于足厥陰肝經之章門穴, 與足少陽膽之帶脈, 五樞, 維道三穴交會, 故帶脈與肝膽經氣相通.”
22) 김기욱, 장재석 共譯. 뜻으로 풀 환제내경 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112
23)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病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p.6 “關以候中焦”

2. 彈脈의 解釋

‘彈’은 사전적으로 ‘탄알, 튀기다, 두드리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²⁴⁾ ‘彈’이라는 脈象은 《脈經校釋》에서 ‘手傳擊應’으로 나타나는 脈象이라 하였다.²⁵⁾

《素門·五藏生成論》에서 손가락으로 느낄 수 있는 脈象을 大小, 滑澁, 浮沈이라 하였는데, 이 때도 본문 일부에서 彈脈을 언급하며 병리적 상황의 脈象으로 표현하였다.²⁶⁾ ‘彈’이라는 脈象은 현대 주로 쓰이는 28脈의 脈象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氣口九道脈 자체가 病邪의 위치를 알기 위한 脈診法이라 병리적 상황만 판단할 뿐, 구체적인 病因까지 고려하지 않은 진단법이기 때문이고, 또한 시대적으로 28脈이 정립되기 이전에, 병리상황만 나타내는 용어로 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彈脈을 28脈으로 치환하여 생각하면 氣口九道脈診을 病因까지 고려하는 진단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대 脈診을 연구한 醫家들은 彈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瀕湖脈學》에서는 緊脈의 象을 彈人手라 하였다.²⁷⁾ 《脈理求真》에서는 滑, 緊脈의 象이라고 하였다.²⁸⁾ 이 중 厥厥累累하여 콩알 같고 구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滑脈에 속하지만 短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陰陽의 邪氣와 正氣가 서로 얽혔기 때문에 나타나는 脈象이다.²⁹⁾ 《雜病源流犀燭》에서는 ‘帶脈은 모든 脈의 約束을 살필 수 있는 左右手의 關部에서 彈轉한 緊, 弦緊彈指한 脈을 候할 수 있다.’ 하였다.³⁰⁾ 《周氏經絡大

全注釋》에서는 ‘帶脈의 關部脈은 弦脈, 伏脈과 같다’고 하였다.³¹⁾

彈脈에 대한 해석은 이처럼 醫家마다 다르다. 이는 氣口九道脈法은 病邪의 위치를 알기 위한 脈診法이고, 28脈의 脈象은 病邪의 위치 및 종류를 알기 위한 脈診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帶脈의 病證이 각기 다른 臟腑와 연계되어 다양한 病因을 가지는데, 각 醫家마다 분석한 病證과 病因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는 모두 帶脈의 병리적 상황으로 귀결되는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각 病證을 帶脈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病因을 분석하여 나타날 수 있는 脈象을 28脈의 脈象으로 분석하면 그 脈象이 결국 彈脈으로 귀결할 것으로 생각된다.

3. 帶脈의 病證

帶脈의 病證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중 양³²⁾의 연구에 따르면 帶脈의 역대 문헌 중 腰痛, 胃腸疾患, 痿症, 帶下가 주로 등장하는 病證이다. 呂³³⁾의 연구는 근 10년간 帶脈의 임상활용에 대한 것인데, 대표 질환으로 腰痛, 腹型肥胖, 婦科疾病, 痿病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 《奇經八脈考》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足痿不用, 腹滿, 腰溶溶若坐水中, 月經不調, 赤白帶下, 左右繞臍腹腰痛, 衝陰股를 대표적인 帶脈의 病證이라 할 수 있다.³⁴⁾

각각 病證은 다양한 病因을 가진다. 따라서 각각의 病證을 帶脈의 生理 및 病理의 관점에서 그 病因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脈象을 28脈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彈脈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24) (주)두산동아. 동아백년옥편. 서울. 두산동아. 2011. p.573

25)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病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p.509

26) 김기욱, 장계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83-84

27) 朴晔 譯釋. 國譯 瀕湖脈學 四言學要 奇經八脈考 附脈訣攷證. 서울. 대성의학사. 2011. p.37

28) 黃宮綉 著. 張效霞, 田靜峰 校注. 脈理求真. 北京. 學苑出版社. 2010. p.34

29) 周學海 著. 白上龍 評註. 評註讀醫隨筆. 서울. 집문당. 2014. p.163

30) 황정일, 이준법, 황민섭, 윤종화. 奇經八脈의 진단법인 氣口九道脈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5. 22(4). p. 169

31) 周孔四 著. 余茂基 注釋. 周氏經絡大全注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 p.352 “脈從關部左右候, 同弦, 同伏, 病在血”

32) 양승정, 진천식, 조명래. 대맥 및 그 유주상 회합하는 경혈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1. 18(1). p.115

33) 呂致君, 許軍峰. 近10年帶脈臨床應用研究進展. 湖南中醫雜誌. 2021. 37(4). p.187-189.

34)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102-106

1) 足痿不用

帶脈의 病證에 대하여 《素門·痿論》에서 ‘陽明經의 氣血이 虛해지면 宗筋이 영양을 받지 못해 늘어지고, 帶脈도 여러 經脈을 끌어 모아주지 못해 다리에 힘이 없어져 쓰지 못하게 된다’고 최초로 언급하였다.³⁵⁾ 足痿不用症의 원인은 陽明經의 氣血이 虛해지는 것 외에도 脾氣가 盛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³⁶⁾ 足痿不用證은 그 증상이 《東醫寶鑑》의 筋痿 및 肉痿와 비슷한데, 肝氣에 熱이 나서 筋痿가 되는 경우, 筋이 당기고 경련이 있다.³⁷⁾ 즉, 足痿不用은 陽明이 虛할 때 발생하지만, 脾氣가 盛하거나 肝에 熱이 나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陽明經이 虛할 경우 關部에서 短脈이 나타난다.³⁸⁾ 脾氣가 盛하거나 肝에 熱이 있는 경우 關부에 滑脈이 나타난다.³⁹⁾⁴⁰⁾ 즉, 足痿不用症의 경우 帶脈의 관점에서는 脈象이 關부에 短脈 혹은 滑脈이 나타난다.

2) 腹滿·脹滿

《難經·29難》에 ‘帶脈이 병들면 腹部가 脹滿하고 허리가 물속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無力하다’고 하였다.⁴¹⁾ 이 중 腹脹, 腹滿 혹은 脹滿症은 脾가 運化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濕痰이 下焦에 流注하여 생기는데, 이는 濕邪가 下走하여 脾, 腎이 상하고 이로 인하여 陽氣가 올라가지 못해 帶脈 부위에 痰涎이 형성되는데, 이때 腹脹症이 나타난다.⁴²⁾ 寒濕이 帶脈에 들어오면 帶脈의 經氣가

不利하여 앞으로는 脾腹에 영향을 주어 脹滿이 발생한다.⁴³⁾ 脹滿症은 또한 陽氣外虛하여 風冷邪 같은 陰氣가 안에 쌓여 발생한다.⁴⁴⁾ 《雜病源流犀燭》에서는 中分이 不運하면 반드시 腹滿症이 생긴다고 하였다.⁴⁵⁾ 즉, 脹滿 혹은 腹滿症은 脾氣가 運化하지 못하여 생기는데, 이는 寒濕邪 또는 濕邪에 의한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다.

中分이 不運하거나 脾가 運化하지 못하여 脹滿症이 발생한 경우 弦脈이 나타난다.⁴⁶⁾⁴⁷⁾ 濕痰으로 인해 脾, 腎이 상해 陽氣가 不昇하여 帶脈에 痰涎이 형성된 경우 滑脈이 나타난다.⁴⁸⁾ 寒濕이 帶脈에 들어오면 緊脈이⁴⁹⁾ 나타난다. 陽氣外虛하여 陰氣가 帶脈에 쌓이면 緊脈이 나타난다.⁵⁰⁾ 즉, 腹滿·脹滿症의 경우 帶脈의 관점에서는 脈象이 關부에 弦脈, 滑脈, 緊脈이 나타난다.

3) 腰溶溶若坐水中

《難經·29難》에는 脹滿症과 더불어 帶脈의 病證을 ‘허리가 물속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無力하다’고 제시하였다.⁵¹⁾ 《奇經八脈考》에서는 帶脈의 병증과 치료에 대해 여러 原書들을 상세히 정리를 하였는데, 그 중 《黃帝明堂經》에서는 ‘帶脈 두 穴은 腰腹部가 늘어져 힘이 없어서 마치 물자루와 같은 형상이 되는 것과 婦人의 小腹痛, 裏急後重, 瘦癢,

35) 김기욱, 장계석 共譯. 뜻으로 풀 환제내경 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246. “陽明虛則宗筋縱, 帶脈不引, 故足痿不用也.”
36) 丁光迪 編著. 諸病源候論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3. p.313
37) 許浚 지음. 윤석희 외 7인 옮김.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16. p.794-795. “肝氣熱爲筋痿, 則筋急而攀 脾氣熱爲肉痿, 則胃乾而渴, 肌肉不”
38) 朴兌 譯釋. 國譯 瀕湖脈學 四言學要 奇經八脈考 附脈訣攷證. 서울. 대성의학사. 2011. p.33
39) 李中梓 著. 包來發 校注. 診家正眼.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p.79-80
40) 朴兌 譯釋. 國譯 瀕湖脈學 四言學要 奇經八脈考 附脈訣攷證. 서울. 대성의학사. 2011. p.23
41) 金경수, 송지영 譯. 國譯 難經. 서울. 집문당. 2016. p.144. “帶之爲病 腹滿腰溶溶若坐水中”

42) 孫朝宗 著. 孫朝宗奇經八脈學驗專輯.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9. p.60-64
43) 朱祥麟 編著. 奇經證治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156.
44) 丁光迪 編著. 諸病源候論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3. p.337
45) 沈金鰲 著.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6
46) 李中梓 著. 包來發 校注. 診家正眼.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p.96-97
47) 黃宮綉 著. 張效霞, 田靜峰 校注. 脈理求真. 北京. 學苑出版社. 2010. p.23
48) 黃宮綉 著. 張效霞, 田靜峰 校注. 脈理求真. 北京. 學苑出版社. 2010. p.25
49) 李中梓 著. 包來發 校注. 診家正眼.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p.93
50) 黃宮綉 著. 張效霞, 田靜峰 校注. 脈理求真. 北京. 學苑出版社. 2010. p.19
51) 金경수, 송지영 譯. 國譯 難經. 서울. 집문당. 2016. p.144. “帶之爲病 腹滿腰溶溶若坐水中”

月經不調, 赤白帶下를 主治하는데, 六分 깊이로 자
침하고 灸를 七壯씩 한다.’고 하였다.⁵²⁾

腰溶溶若坐水中症은 帶脈이 힘을 잃었을 때 臟腑
가 내려 앉으며 나타난다. 또는 큰 병이 나온 후에
下焦가 그 기운을 잃었을 때 濕熱이 壅滯하면서 膀
胱이 瀉하는 기능을 못하면서 허리에 水種이 쌓이는
것이다.⁵³⁾ 寒濕이 帶脈에 들어오면 帶脈의 經氣가
不利하여 뒤로는 허리에 영향을 주어 허리가 물속에
앉아 있는 것처럼 무거운 증상이 나타난다.⁵⁴⁾ 《雜
病源流犀燭》에서는 陰陽이 모두 虛하거나, 中分이
약하여 그 기능을 못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증상이
생긴다고 하였다.⁵⁵⁾ 이런 증상은 《東醫寶鑑》에서
허리에 돌이 있는 것과 같은 증상의 濕腰痛과 비슷
하다.⁵⁶⁾ 즉, 허리가 물속에 앉아 있는 것처럼 무거
운 증상은 帶脈의 氣가 그 힘을 잃었을 때 생기는
데, 이는 濕熱, 濕邪, 寒濕邪 또는 陰陽兩虛에 의한
다고 할 수 있다.

中分이 약하거나, 陰陽兩虛, 혹은 帶脈이 그 氣를
잃었을 경우 關部에서 短脈이 나타난다.⁵⁷⁾ 下焦가
힘을 잃어 瀉하는 기능을 못하여 그 위의 中焦에 濕
熱이 壅滯되어 水種이 쌓이면 關部에 滑脈이 나타난
다.⁵⁸⁾ 寒濕이 帶脈에 들어가 오래된 경우 寒凝으로
인하여 緊脈이 나타난다.⁵⁹⁾ 또한 《東醫寶鑑》에서
는 腰痛의 脈은 모두 沈弦하다고 하였는데, 濕腰痛
의 경우에도 沈弦脈이 나타난다.⁶⁰⁾ 즉, 腰溶溶若坐

水中症의 경우 帶脈의 관점에서는 脈象이 關部에서
短脈, 弦脈, 滑脈이 나타난다.

4) 月經不調, 赤白帶下

張子和는 ‘모든 經脈이 上下로 往來할 때에 帶脈
부분에 熱을 남겨 놓으면 留滯된 熱이 鬱滯되어 막
히므로 백색물질이 가득 차 넘쳐 소변을 따라 계속
하여 그치지 않고 흐르니 이것이 白帶下이다’라고
하였다.⁶¹⁾ 《奇經八脈考》에서 ‘帶脈 두 穴은 婦人
에 있어서는 小腹痛, 裏急後重, 瘰癧, 月經不調, 赤
白帶下를 主治하는데, 六分 깊이로 자침하고 灸를
七壯씩 한다.’고 하여 月經不調, 赤白帶下와 帶脈의
연관성을 밝혔다.

白帶下는 보통 脾虛로 발생하지만 肝氣의 鬱結로
脾가 손상되고 土氣가 下陷하여 白滑한 帶下가 나타
나는 경우도 있다.⁶²⁾ 七情內傷 혹은 房勞過多로 인
하여 帶脈이 상한 경우, 氣가 下陷하여 內臟의 下垂
症이 생기는데, 여자의 경우 帶下症이 그러하다.⁶³⁾
《奇經證治條辨》에 의하면 心脾가 위로는 鬱하고
肝腎이 밑으로는 虛하여 熱邪가 滯할 경우 赤白帶下
가 발생한다고 하였다.⁶⁴⁾ 《東醫寶鑑》에서는 帶下
는 濕熱이 쌓이고 멎쳐 흠어지지 않기 때문에 병이
된다고 하였다.⁶⁵⁾ 즉, 月經不調 혹은 赤白帶下는 濕
熱, 七情內傷, 心脾鬱 및 肝腎虛로 인하여 발생한다.
肝氣가 鬱하여 발생한 경우, 關部에 弦脈이 나타
난다.⁶⁶⁾ 七情內傷의 경우 思가 凝滯되면 肝木이 勝
하여 關部에 弦脈이 나타난다.⁶⁷⁾ 熱이 滯하여 발생
할 경우 滑脈이 나타난다.⁶⁸⁾ 《諸病源候論》에서는

52)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102

53) 孫朝宗 著, 孫朝宗奇經八脈學驗專輯.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9. p.60-64

54) 朱祥麟 編著. 奇經證治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156.

55) 沈金鰲 著,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6

56) 許浚 지음, 윤석희 외 7인 옮김.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16. p.710

57) 李中梓 著, 包來發 校注. 診家正眼.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p.86

58) 朴昇 譯釋, 國譯 瀕湖脈學 四言學要 奇經八脈考 附脈訣攷證. 서울, 대성의학사. 2011. p.23

59) 李中梓 著, 包來發 校注. 診家正眼.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p.93-94

60) 許浚 지음, 윤석희 외 7인 옮김.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16. p.705

61)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102

62) 孫朝宗 著, 孫朝宗奇經八脈學驗專輯.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9. p.60-64

63) 朱祥麟 編著. 奇經證治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156.

64) 朱祥麟 編著. 奇經證治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156

65) 許浚 지음, 윤석희 외 7인 옮김.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16. p.310

66) 李中梓 著, 包來發 校注. 診家正眼.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p.96-97

67) 裘莊元 著. 三三醫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496

이 때의 脈은 陽微하여 나타나고, 關尺部가 小緊한 脈이 나타난다고 하였다.⁶⁹⁾ 따라서 帶下 또는 月經不調의 경우 帶脈의 관점에서는 脈象이 關部와 尺部에서 短脈, 緊脈, 滑脈, 또는 弦脈이 나타난다.

5) 左右繞臍腹腰痛, 衝陰股也

《脈經》에서는 《難經·29難》의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帶脈의 병을 얻으면 左右 臍腹腰痛과 사타구니 안쪽이 불편하다’고 하였다.⁷⁰⁾ 배꼽부터 허리까지의 통증과 사타구니의 통증은 氣가 원활하게 通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寒邪가 帶脈에 阻滯되면 氣가 널리 通하지 못하여 臍腹腰痛이 발생한다.⁷¹⁾ 《雜病源流犀燭》에서는 陽氣가 勝하지 못하여 天樞를 지키지 못하고, 陰氣가 掩襲하면 반드시 臍腹腰痛이 발생한다고 하였다.⁷²⁾ 즉, 帶脈 부위의 통증은 寒邪의 阻滯 또는 陰氣가 掩襲하여 발생한다.

寒邪가 帶脈에 阻滯되거나 오래되어 寒凝이 되면 關部에 緊脈⁷³⁾이 나타난다. 寒邪가 胃에 들어가 膈痛이 생길 경우 關部에서 弦脈이 나타난다.⁷⁴⁾ 腰痛의 경우 《東醫寶鑑》에서는 沈弦脈이 나타난다고 하였다.⁷⁵⁾ 즉, 左右繞臍腹腰痛의 경우 帶脈의 관점에서는 脈象이 關部에 緊脈, 弦脈이 나타난다.

帶脈에 병이 들어 위와 같은 病證이 나타났을 때 28脈의 脈象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1과 같다.

표 1. 각 病證에 따른 脈象

病證	脈象
足痿不用	短脈, 滑脈
腹滿·脹滿	緊脈, 弦脈, 滑脈
腰溶溶若坐水中	弦脈, 滑脈, 短脈
月經不調, 赤白帶下	緊脈, 弦脈, 滑脈,
左右繞臍腹腰痛, 衝陰股也	緊脈, 弦脈

따라서 帶脈의 病證에서의 脈을 28脈의 脈象으로 보면 短脈, 滑脈, 緊脈, 弦脈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역대 醫家들이 彈脈을 해석했을 때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氣口九道脈에서 帶脈의 病證 상황을 나타내는 ‘關部彈’에서 彈의 의미를 短脈, 滑脈, 緊脈, 弦脈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Ⅲ. 고찰

《奇經八脈考》에서, 經脈에서 흘러넘치는 氣가 奇經으로 들어가서 서로를 옮기며 灌溉하여 안으로 臟腑를 溫養하고 밖으로는 腠理를 적셔준다고 하였다. 이를 비유하여 正經은 도랑과 같고, 奇經은 湖澤과 같다고 하였다.⁷⁶⁾ 奇經八脈의 병은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正經과 絡脈의 병이 유입되어 발현되고 傳經이나 流注에 의한 轉變이 없다.⁷⁷⁾

奇經八脈의 病證에 대한 진단법은 氣口九道脈診을 이용한 방법 외에는 전무하며, 李時珍은, 비록 三部脈法은 전하여졌으나, 九道の 脈法은 숨겨져 있어 奇經八脈의 이론을 숙지한 醫家가 별로 없다고 하였고, 이에 氣口九道脈診法을 상세히 밝혀 奇經八脈의 醫論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었다⁷⁸⁾.

한편, 《鍼方六集·旁通集》은 “침은 한 가지만 생

68) 朴兌 譯釋. 國譯 瀕湖脈學 四言學要 奇經八脈考 附脈訣攷證. 서울. 대성의학사. 2011. p.23
69) 丁光迪 編著. 諸病源候論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3. p.727
70)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病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p.72. “診得帶脈 左右繞臍腹腰痛 衝陰股也.”
71) 朱祥麟 編著. 奇經證治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156.
72) 沈金鰲 著.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06
73) 李中梓 著. 包來發 校注. 診家正眼.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p.93
74) 李中梓 著. 包來發 校注. 診家正眼.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p.96-97
75) 許浚 지음. 윤석희 외 7인 옮김.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16. p.705

76)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1
77) 李梴 編著. 新校編註醫學入門 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79. “奇經 病非自生 蓋因諸經 溢出 而流入之也”
78)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109 “三部雖傳 而九道論隱, 故奇經之脈, 世無人知”

각하면 된다. 그 하나는, 風·寒·暑·濕·燥와 七情內傷, 跌仆, 打撲, 癰核, 癰腫 등의 원인을 묻지 말고 단지 병이 어느 經에 있는가만을 따져서 그 寒·熱·虛·實을 살펴 施針하는 것으로서, 치료의 관건은 陰陽, 逆順, 補瀉를 명확히 하는 데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고 아울러 “약으로 치료할 때 반드시 질병의 三因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三因은 外因, 內因, 不內外因이다. …… 약을 쓰는 자는 반드시 어떠한 원인으로 병이 들었는지 상세히 살펴 施治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정확한 침 치료를 위해서는 그 病邪의 위치가 중요하고, 약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病邪의 종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氣口九道脈診은 病邪의 위치를 알기 위한 脈診으로서 침 치료에 적합한 진단법이다. 28脈을 이용한 脈診法은 病邪의 위치와 內因, 外因, 不內外因 등의 病因을 알기 위한 脈診으로서 한약처방 치료를 위한 진단법으로 발전해왔다.

역대 鍼灸醫書 중 《鍼經指南》⁷⁹⁾·《鍼灸大全》⁸⁰⁾·《鍼灸大成》⁸¹⁾·《中醫針經寶典》⁸²⁾에서는 帶脈의 病證과 隨證配穴이 기재되어 있지만 氣口九道脈診에 관한 기술이 없다. 氣口九道脈診의 關部の 彈脈은 帶脈의 병리적 상황을 나타내고 그에 따른 鍼灸치료를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기존 帶脈의 病證과 隨證配穴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욱 정확한 침 치료를 할 수 있다고 思料된다.

《素門·異法方宜論》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응용하여 치료를 한다고 하였다.⁸³⁾ 《鍼方六集·旁通集》은 침과 약물치료가 하나로 통한다고 한다.⁸⁴⁾ 따라서 鍼灸와 한약처방은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상황에 적절하게 內治를 하는 한약처방과 外治를

하는 鍼灸치료는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야한다. 현재 임상에서도 鍼灸와 한약처방이 결합한 복합치료법이 보편적인 방법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

奇經八脈과 연관된 醫書 중 《奇經八脈考》⁸⁵⁾, 《奇經證治條辨》⁸⁶⁾, 《孫朝宗奇經八脈學專輯》⁸⁷⁾ 등에서는 帶脈의 病證 상황에 따른 처방이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帶脈의 病證 상황에 대한 대증 처방만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다양한 帶脈의 病證상황의 처방을 상황에 맞게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약물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病因 파악이 중요하고, 따라서 帶脈의 病證을 중심으로 28脈의 脈象을 이용하여 氣口九道脈의 彈脈을 분석한 결과 病邪의 종류도 판단하여 정확한 약물을 이용한 치료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思料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病邪의 위치를 구분하는 氣口九道脈診과 病邪의 위치 및 病因을 구분하는 28脈의 脈象을 帶脈의 病證 분석을 통해 그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氣口九道脈에서 手傳擊應하는 帶脈의 彈脈은 다양한 醫家의 견해를 종합하여보면 28脈 中 弦脈, 緊脈, 滑脈, 短脈의 脈象으로 귀결하고, 따라서 그 病因까지 파악할 수 있다.

‘彈脈’은 寸部에 나타나면 陽蹻脈, 尺部에 나타나면 陰蹻脈의 병리상황을 나타낸다. 따라서 彈脈이 陽蹻脈과 陰蹻脈에서도 같은 脈象으로 해석되는지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病證을 진단함에 있어 帶脈의 病證이라는 한 가지 큰 病因을 脈診을 통해 알 수 있고, 한약치료를 위한 세부적인 病因까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으로 추후 다른 奇經八脈의 病證의 진단에 대한 意義를 명확히 하고, 奇經八脈의 진단법인 氣口九道脈의 意義를 더욱 발전시켜 鍼灸와 약물의 접점을 밝힐 연구가 진행되

79) 竇杰 著, 康鎖彬 主編, 詮新針經指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1

80) 徐鳳 撰, 鍼灸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81) 楊繼州 著, 靳賢 編, 洪渡弦 譯, 注解完譯 鍼灸大成, 서울, 도서출판 일취월장, 2016.

82) 王占偉, 仲任 主編, 承門中醫針經寶典, 台北, 大展出版有限公司, 2009

83) 김기욱, 장계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p.91

84) 吳崑 著, 施土生 校釋, 鍼方六集校釋,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p.271

85)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86) 朱祥麟 編著, 奇經證治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87) 孫朝宗 著, 孫朝宗奇經八脈學專輯,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9.

면, 임상에서 한의학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결론

이상 氣口九道脈에서 나타나는 彈脈의 의미를 帶脈 중심으로 해석하여 關部에서의 彈의 脈象과 28脈의 상관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 意義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氣口九道脈診중 手傳擊應하는 彈의 脈象은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28脈에 속하지 않은 脈象이다. 帶脈에 병이 있을 때 關部에 나타나는 彈脈은 28脈中 弦脈, 緊脈, 滑脈, 短脈의 脈象으로 귀납할 수 있다.
2. 氣口九道脈診法에서 關部에 手傳擊應하는 彈脈의 의미를 현재 통용되는 28脈의 脈象으로 해석하여 더 정확한 鍼灸 치료를 위한 진단법으로 활용 할 수 있다.
3. 關脈彈의 28脈을 弦脈, 緊脈, 滑脈, 短脈의 脈象으로 해석하여 帶脈病證의 病邪의 종류를 판단하여 다양한 처방 중 정확한 약물을 취사선택하여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처럼 氣口九道脈을 응용하여 임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던 奇經의 침 치료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약물치료까지 응용하면 《鍼方六集·旁通集》의 ‘針藥一原論’에 進一步 할 수 있다고 思料된다.

References

1. 裘莊元 著. 三三醫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2. 金경수, 송지청 譯. 國譯 難經. 서울. 집문당. 2016.
3. 김기욱, 장제석 共譯. 뜻으로 풀 황제내경 소문. 서울. 법인문화사. 2014.
4. 唐宗海 著.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宗海醫學全

書. 中西滙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5. 竇杰 著. 康鎖彬 主編. 詮新針經指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2001
6. (주)두산동아. 동아백년옥편. 서울. 두산동아. 2011.
7. 呂致君, 許軍峰. 近10年帶脈臨床應用研究進展. 湖南中醫雜誌. 2021. 37(4). p.187-189.
8. 柳長華 編著.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奇術出版社. 2014.
9.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0. 李中梓 著. 包來發 校注. 診家正眼.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11. 李梴 編著. 新校編註醫學入門 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4.
12. 李濬著. 珍本醫籍叢刊: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13. 朴旻 譯釋. 國譯 瀕湖脈學 四言舉要 奇經八脈考 附脈訣攷證. 서울. 대성의학사. 2011.
14. 徐鳳 撰. 鍼灸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15. 成振鏞, 李曉君, 郭霞珍. 奇經脈診法初探. 北京中醫藥大學學報(中醫臨床版). 2010. 17(6). p.24-26.
16. 孫朝宗 著. 孫朝宗奇經八脈學驗專輯.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9.
17. 신홍목 지음. 장부경락학. 서울. 청흥. 2016.
18. 楊繼州 著. 靳賢 編. 洪渡弦 譯. 注解完譯 鍼灸大成. 서울. 도서출판 일취월장. 2016.
19. 양승정, 진천식, 조명래. 대맥 및 그 유주상 회합하는 경혈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1. 18(1). p.105-116.
20. 吳崑 著. 施土生 校釋. 鍼方六集校釋.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1.
21.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病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9.
22. 王占偉, 仲任 主編. 承門中醫針經寶典. 台北. 大展出版社有限公司. 2009

23. 于志亮, 楊碩, 楊孝芳. “氣口九道脈”的溯源初探. 中西醫結合心血管病雜誌. 2018. 6(34). p.27.
24. 張璐 著. 張成博, 歐陽兵 点校. 診宗三昧.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2.
25. 丁光迪 編著. 諸病源候論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3.
26. 周孔四 著. 余茂基 注釋. 周氏經絡大全注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
27. 朱祥麟 編著. 奇經證治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28. 周學海 著. 白上龍 評註. 評註讀醫隨筆. 서울. 집문당. 2014.
29.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脈簡補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0. 陳鼎三 著. 江爾遜 点校. 醫學探源. 北京. 學苑出版社. 2011.
31. 沈金鰲 著. 田思勝 主編. 沈金鰲醫學全書·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2. 許浚 지음. 윤석희 외 7인 옮김. 東醫寶鑑.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16.
33. 黃宮綉 著. 張效霞, 田靜峰 校注. 脈理求真. 北京. 學苑出版社. 2010.
34. 황정일, 이준범, 황민섭, 윤중화. 奇經八脈의 진단법인 氣口九道脈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5. 22(4).